

홈 > 뉴스 > 기획 > 문화유산재발견

영등신 반기고 마중하는 한바탕 종합예술

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매년 음력 2월 1일, 14일 환영제, 송별제 집전

데스크승인 2014.03.19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최근 영등신이 제주를 찾아 온갖 해산물 씨앗을 뿌리고 돌아갔다. 도민들은 영등신을 마중하고 배웅하는 곳을 올렸다. 어부·해녀의 해상 안녕과 어업 풍요를 비는 제사였다. 어쩌면 그것은 심방(무당)의 지휘아래 음악, 춤, 마당놀이, 판소리 사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가 각각 지난 1일과 14일 제주시수협 위판장과 칠머리당에서 영등굿보존회에 의해 집전됐다.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으로, 송별제에 앞서 12일부터 3일간 칠머리당과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영등축제도 열렸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아 풍어와 풍농을 비는 곳으로 1980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됐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등신은 강남천자국(중국) 또는 외눈박이 섬에서 오는 내방(來訪)신으로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는다. 한림읍 귀덕리 속칭 '복덕개' 포구로 들어와 한라산에 올라 오백장군에게 문안드린 후 어승생·산방굴을 경유해 '도리디곳'(조천읍 교래)으로 이동하며 땅에 오곡 씨를 뿌리고 바다에는 소라·전복·미역의 씨앗을 뿌린다. 영등할망은 보름 뒤 우도면의 '질진각'을 통해 이도한다.

제주에서 음력 2월을 영등달이나 영등이 드는 달로 부르고 이때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하는 유래로, 영등신이 떠나면 제주에는 비로소 봄이 온다.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마을마다 신이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 영등굿을 벌인다. 제주시 건입동과 함께 조천읍 북촌·함덕리, 구좌읍 김녕·하도·세화리,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수산·신양·온평리, 안덕면 사례리 등 해안가 마을에서 주로 영등굿이 행해진다.

이들 영등굿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칠머리당영등굿이다. 칠머리당에서는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 14일에 영등송별제가 각각 열린다. 송별제가 환영제보다 성대하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칠머리당이 영등신과 함께 당신을 모시고 있어 당굿까지 겸한다. 영등굿의 기본형인 초감제-요왕맞이-씨드림·씨점-배방선의 구성에다 초감제 다음에 본향뚝, 배방선의 앞에는 영감놀이가 각각 삽입돼 도내 영등굿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굿의 순서는 신들에게 굿을 고해 청하고 좌정시키는 초감제를 통해 영등신을 모신 후 '본향뚝'으로 당신을 청해 모신다. 영등굿과 당굿의 이중 성격을 띠면서 신을 오리 밖까지 마중 나가 모셔오는 '오리정 신청궤'를 두 번 치르는 것이다.

요왕맞이에선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깨끗이 치워 닦고 나서 바다 밭에 씨앗을 뿌리는 모의적인 농경의례인 씨드림과 그 해 어떤 해산물이 많이 날 지 점을 치는 씨점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어부를 위한 풍어굿인 영감놀이가 펼쳐진 뒤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배방선 의식이 마련된다.

“상잠수 중잠수 하잠수, 특히 건입동 잠수들이 물에 들어갔다 물질하러 갔다 뉘 나게 마십시오. 물속에 들었다 거북이 보고 놀라게 마십시오. 바다에서 전복인가 소라인가 하며 떼러 들어갔다 손이 끼게 하지 마십시오. 요왕님아 한번 물에 들면 망사리 가득 많이 등에 지고 나가게 하여 이 자손들 편안하게 하십시오.”

요왕맞이의 한 대목이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